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할 말이 그렇게도 없었거나 또 하나 마나한 헛소리를 했을바에는 차라리 입을 웅다물고있는편이 체면을 유지하는데 더 리로웠을것이다.

윤석열의 《8.15경축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심도 떠나가는 판국에 윤석열이 애당초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듯싶다.

내가 윤석열을 격정해서 이 말을 해 주는것이 아님삼 착동자도 다 알리고 하도 남쪽동네에서 우리의 반응을 목베려고 궁궐해하기에 오늘 몇마디 해주는것이다.

만약 연단에 정 나서고싶었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품되어 머리를 굴렸기에 그렇게도 체면 하나 제대로 쟁길 말을 고르기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윤석열은 운동 《공산세력파 맞서 자유국가 건설 과정》,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것따위의 궤변과 체제대결을 고취하는데만 몰입하였다.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수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것도 다

플라 없다.

가장 역스러운것은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넘게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낸것이다.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못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는 않는데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라나 권좌에 올라앉았다.

이미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북남 관계를 개선할 그 무슨 구상이라도 품고있는듯 내새를 피운데 이어 미국과 주변국들에 설명해가며 리해와 지지를 청탁해대는 등 나름대로 술한 품을 들인것같은데 이번에 내놓은 《구상》이라는것이 참 허망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소위 《대통령》이라는자가 나서서 한다는 마디마디의 그 엉망같은 말들을 듣고 앉아있자니 참으로 그쪽 동네 세상이 신기해보일따름이다.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

이 저 운아무개밖에 없었는가?

《담대한 구상》? 그러면 내가 그 허망성을 한마디로 대답해주겠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것은 겉모습은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것인지, 또 북남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할런지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니 그나름대로의 《용감성》과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에 의아해짐을 금할수 없다.

몇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것이 아니라 10여년전 리명박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을커녕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써놓은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제식대로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여놓은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북이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러가 잘못된 전체

이라는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력대 선입자들은 물론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까지 어찌지 못한 《북핵 포기》의 헛된 망상을 멋모르고 줄 줄 읽어가는것을 보자니 참으로 안됐다 하는 안스러움, 분명 결에서 잘못 써준 글이겠는데 아직은 뭐가 된지도 모르고 냅다 읽어버렸다는 불쌍한 생각이 든다.

세상에는 흥정할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제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정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것을 느꼈다.

권좌에 올랐으면 2~3년은 열심히 일해야야 그제서야 세상돌아가는 리치, 사정을 읽게 되는 법이다.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

아직 판돈을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찌볼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는자들에게 보내줄것은 쓰거운 경멸뿐이다.

북남문제를 꺼내놓고 집적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

고 걱정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가족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속에 살았는데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는가.

우리 경제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조선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따위를 께쳐대는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적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뿐이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매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자체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된다고 알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윤석열은 자기 패당들이 때없이 나서서 무식하게 내뱉는 대결적망발들이 어떤 큰 위협을 키우게 되겠는가를 깊이 걱정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부언하건대 우리와 일체 상대하지 않는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의 권언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됐지만 하루천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발사지점은 남조선당국이 서투르고 입 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늘쌍 《한》미사이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격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찌서 발사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원은 왜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제원과 비행자리길이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겁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앞에 어떻게 변명해나갈지 정말 기대할만한 볼거리가 될것이다.

주체111(2022)년 8월 18일
평양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빛나는 애국애족의 삶

인생을 값있게 살려주는것은 인간의 소원이요 지향이다.

하다면 장장 70여년간이나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으로 되는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진 통일애국인사들의 삶에서 찾으려고 한다.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빛나는 삶.

그것은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사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 있다.



같이 사상과 제도보다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최고의 애국으로 내세우고 계급과 계층,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조국통일을 위해 공헌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북과 남, 해외의 그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수여되는 상은 없습니까?

이것은 첫 조국통일상수상자가 발표되던 날 어느 한 해외동포가 처된 격정의 웨침이다.

이것이 어찌 그만의 심정이 아니고 하라. 통일의 길에 바친 려사들의 투쟁공로와 애국정신을 값높이 내세워주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탄복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난 조국통일상은 분열된 우리 조국에서 참된 애국은 어떤것인가를 말하여주는 최대의 애국증표였다.

의 새 출발을 시작하였으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통일성업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신보사 명예사장, 조선민중의애국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하였던 최덕신선생의 한생도 눈앞에 어려온다. 대결과 분열의 장벽을 박차고 통일을 위해 사신을 넘었던 문익환목사, 손에 쇠고랑을 차고서도 통일을 웨치며 그런 그의 당찬 모습이 마음속을 더욱 파고들며 간직된다.

생의 마지막까지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가지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한 최홍희선생,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품에서 조국을 위한 음악창조의 길을 찾은 생의 말년까지 민족의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애국의 한길을 끝까지 걸은 윤이산선생의 곡절많은 운명의 길도 돌이켜보게 된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통일을 목청껏 웨치며 항쟁의 마당에서 애국의 피를 흘린 조성만, 리동수, 리한철, 남태현, 리철규 등 수많은 통일애국렬사들의 삶도 보인다.

진정 그들은 모두 조국통일에 자기를 아낌없이 바친 투사들이었고 려사들이었다. 바로 조국은 이들의 삶을 잊지 않고 조국통일상이라는 값높은 칭호와 더불어 빛내여주었다.

한편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화요행동》은 올해 6월 14일에 재개되고 같은 날 130번째를 맞이하였다.

135번째가 된 이번 《화요행동》 참가자들은 1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며 호수 가부조교에 다니던 시절 《화요행동》에 참가한 경험을 되살리며 《우리 학교를 다니고 지금의 내가 있다. 나를 키워준 훌륭한 배움터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앞에서 주저없이 않고 계속 목소리를 울려 나갈것이다.》고 결심을 피력하였다.

조선대학교 리공학부 김리사학성(2학년)은 여름방학기간 사회실천활동의 일환으로 《화요행동》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내가 조교를 졸업한 후에도 부당한 차별행위는 계속되고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이 활동의 영향력도 커질것이다.》고 하면서 민족교육권을 지켜 운동들 대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리연선

조국통일을 위해 바쳐진 삶에 대한 값높은 평가

1990년 8월 15일, 그날은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누구나 마흔다섯번째로 맞게 되는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기쁨과 환희로 설레고 있던 그때 평양에서 울려 퍼진 한련의 보도가 사람들의 가슴을 새차게 울려주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과 남, 해외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크게 공헌한 다음은 위대한 조국통일상 수여에 관한 력사적인 결정이 온 겨레에게 안겨준 환희와 격정을 참으로 컸다. 민족이 있고서야 사상과 제도도 있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응당 평가하고 내세워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상이 전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성스럽고도 어려운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것만큼 무게가 있으면서도 의의있게 제정하도록 해주셨다. 창작가들이 만들어올린 조국통일상메달과 상장건본을 친히 보여주시며 조국통일상메달은 다른 메달과 달리 금

으로 할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상장내용도 통일가 뚜렷이 새겨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에 떠맡겨 조국통일상은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던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완성된 조국통일상메달과 상장을 보여주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조국통일상제정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첫 수상자들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세상에는 조국통일상과

달 어느 한 해외동포가 처된 격정의 웨침이다.

이것이 어찌 그만의 심정이 아니고 하라. 통일의 길에 바친 려사들의 투쟁공로와 애국정신을 값높이 내세워주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탄복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난 조국통일상은 분열된 우리 조국에서 참된 애국은 어떤것인가를 말하여주는 최대의 애국증표였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통일을 목청껏 웨치며 항쟁의 마당에서 애국의 피를 흘린 조성만, 리동수, 리한철, 남태현, 리철규 등 수많은 통일애국렬사들의 삶도 보인다.

진정 그들은 모두 조국통일에 자기를 아낌없이 바친 투사들이었고 려사들이었다. 바로 조국은 이들의 삶을 잊지 않고 조국통일상이라는 값높은 칭호와 더불어 빛내여주었다.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그만큼 조국통일의 추계적력량은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 거추적인 통일대진군도 다그쳐지고있다.

오늘도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 그들은 모두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로서 후대들에게 호소하고있다.

8천만겨레! 누구나 조선사람의 본분을 자각하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순결한 애국의 마음과 노력을 바쳐가자. 민족이 기억하는 참된 통일애국투사가 되라.

본사기자 리연선

한편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화요행동》은 올해 6월 14일에 재개되고 같은 날 130번째를 맞이하였다.

135번째가 된 이번 《화요행동》 참가자들은 1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며 호수 가부조교에 다니던 시절 《화요행동》에 참가한 경험을 되살리며 《우리 학교를 다니고 지금의 내가 있다. 나를 키워준 훌륭한 배움터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앞에서 주저없이 않고 계속 목소리를 울려 나갈것이다.》고 결심을 피력하였다.

조선대학교 리공학부 김리사학성(2학년)은 여름방학기간 사회실천활동의 일환으로 《화요행동》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내가 조교를 졸업한 후에도 부당한 차별행위는 계속되고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이 활동의 영향력도 커질것이다.》고 하면서 민족교육권을 지켜 운동들 대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리연선

그들가운데는 위같은 청춘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바친 열혈의 투사들도 있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조국통일 만세!》를 소리높이 웨친 애국인사들도 있었다. 또한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아가도 조선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통일을 위한 사업에 몰입장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해외동포들도 있었다.

겨레를 통일성전으로 부르는 조국통일상

조국통일상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의 축도이고 그 길에서 빛나는 통일에 국인사들의 값높은 삶의 총화이기도 하다.

첫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의 삶이 그러하였다.

항일혁명투사 김책동지와 남조선의 전 민주독립당 당수였던 홍명희선생, 어제날 반공의 앞장에 섰던 민족자주전맹위원장 김구식선생, 평양을 방문하고 육교를 치르고있던 남조선의 문익환목사... 북과 남의 인사들만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한겨레운동원합》 상임고문으로 활동하

가르침을 통일성전으로 부르는 조국통일상

고있던 립창영선생과 조국통일북아메리카협회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선우학원선생을 비롯한 해외인사들...

한사람한사람 이름을 꼽아볼수록 생각도 깊어진다.

그러나라면 량반가문의 후손으로서 일찌기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 투쟁들에 참여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품에 안겨 공화국의 첫 부수상으로, 조국과 민족이 기억하는 애국인사로 값높은 삶을 누린 홍명희선생의 과민민장한 한성이 떠오르고 잘못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인생

조국통일상을 영예롭게 수여받은 사람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그만큼 조국통일의 추계적력량은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 거추적인 통일대진군도 다그쳐지고있다.

오늘도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 그들은 모두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로서 후대들에게 호소하고있다.

8천만겨레! 누구나 조선사람의 본분을 자각하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순결한 애국의 마음과 노력을 바쳐가자. 민족이 기억하는 참된 통일애국투사가 되라.

본사기자 리연선

조국통일상을 영예롭게 수여받은 사람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그만큼 조국통일의 추계적력량은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 거추적인 통일대진군도 다그쳐지고있다.

오늘도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 그들은 모두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로서 후대들에게 호소하고있다.

8천만겨레! 누구나 조선사람의 본분을 자각하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순결한 애국의 마음과 노력을 바쳐가자. 민족이 기억하는 참된 통일애국투사가 되라.

본사기자 리연선

